



청년 고용대책의 주요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3.6. 뉴스핌은 「‘청년뉴딜’에 청년복지카드 신설, 문화·복지 위한 100만원 지급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정부는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‘청년뉴딜’에 「청년복지카드」가 포함되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1만명이 3년간 문화·복지 분야에 쓸 수 있는 100만원을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 - 또한, 당초 쉬었음 청년 대책은 1분기 내 발표가 예상됐으나,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‘특단의 대책’을 주문하면서 대책 규모와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정부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 및 ‘쉬었음’ 증가 등 어려운 고용여건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, 일경험 제공, 회복 지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.
 - 다만, 대책의 규모·발표시기·명칭 및 포함되는 과제 등 기사의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으니,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재정경제부 <총괄>	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태웅 (044-215-85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준 (044-215-8531)
고용노동부 <공동>	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	책임자	과 장	최윤미 (044-202-7440)
		담당자	서기관	박세은 (044-202-7423)